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의 친정방문 〈날(NAL)자〉*Nalja*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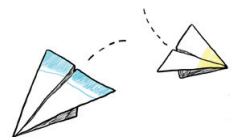
조 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 뜨거운 태양은 한국과 베트남, 큰 차이는 없었는지요. 지난 여름, 베트남으로 네 번째 친정방문을 다녀 오신 이주여성과 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고향집에서 그리웠던 가족과 만난 흥분과 감동, 넘치는 이야깃거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쌓인 이야기를 다 풀지도 못하고 떠나는 아쉬움도 컸을 줄 압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가족끼리 만든 즐거운 추억이 그 이후 여러분들 가족의 삶에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NAL)자〉는 올해로 4년째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123가족(총443명)이 참여했습니다. 〈날자〉는 온 가족이 함께 친정집, 처가/외가에 다녀오면서 가족원들이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되고, 또한 여러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친목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단순한 '친정 방문' 프로그램과는 뚜렷한 차이점을 지닙니다. 사업이 지속되면서 이주여성 '선후배'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올해에는 출발 전 준비모임에는 2007년 첫 회에 참여한 가족이 오셔서 안내를 도와주시고 통역해주시는 등 선배로서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올해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이제 친정방문의 선배가 되십니다. 날자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동네, 이웃가족들에게도 친정방문 이후에 행복한 기운을 나누어주시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선, 지속적으로 〈날자〉를 후원하는 삼성생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동안 토론하고, 좋은 프로그램화하기 위해 노력하신 NGO활동가 여러분, 재능나눔에 적극 동참해주신 조세현 작가, 선뜻 시간을 내어주신 배우 장서희씨, 좋은 기사로 활동을 널리 알려주신 한국일보와 여성중앙, 호치민여성신문, 아리랑TV, 베트남교민일보 등.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마음을 품은 과자세트로 기쁨을 전달해주신 오리온에도 감사드립니다.



날(NAL)자 프로젝트 취지

〈날자〉 프로젝트가 만들고자 하는 ‘날’

1) 엄마와 아내의 고향에 가족이 모두 함께 방문하는 날

- 결혼 후, 가족들이 모두 함께 처음으로 엄마와 아내의 고향으로 갑니다.
-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여성이민자의 기쁨을 함께 하고, 또 하나의 고향인 그곳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합니다.



2) 다른 국제결혼가정들과 함께 하는 날

- 국제결혼한 다른 가족들을 만나 함께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을 쌓아갑니다.



3) 국제결혼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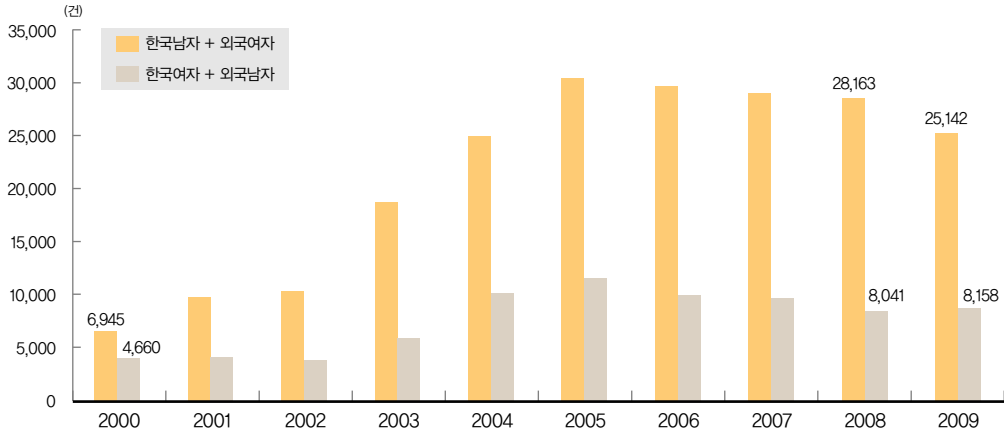
- 우리는 단지 국적이 다를 뿐입니다. 국제결혼가정이 가진 아름다운 모습을 나누게 됩니다.

‘날(NAL)자’ 프로젝트의 필요성

• 다문화시대에 접어든 한국 사회

-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은 2002년 15,202건에서 2008년 33,3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지만, 2005년 이후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혼인비중은 10.8%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 한국사회가 다문화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신속하게 확립하고 새로운 관점과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

▷ 외국인과의 혼인추이



자료 : 통계청, 2010

• 베트남여성과의 한국남성과의 혼인 지속적으로 증가

- 2009년 한국남자의 국제결혼은 25,142건이며 이는 한국여자의 국제결혼(8,158건)보다 3배가 많음(통계청, 2010). 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3국의 여성들과의 혼인은 전체 외국인여성과의 혼인건수 중 80.6%를 차지함

▷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
한국남자 +외국여자	6,945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100.0	-3,021
중 국	3,566	6,977	7,023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11,364	45.2	-1,839
베트남	77	134	474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7,249	28.8	-1,033
필리핀	1,174	502	838	928	947	980	1,117	1,497	1,857	1,643	6.5	-214
일 본	819	701	690	844	809	883	1,045	1,206	1,162	1,140	4.5	-22
캄보디아	1	2	2	19	72	157	394	1,804	659	851	3.4	192
태 국	240	182	327	345	324	266	271	524	633	496	2.0	-137
미 국	231	262	267	322	341	285	331	376	344	416	1.7	72
몽 골	64	118	194	320	504	561	594	745	521	386	1.5	-135
우즈베키스탄	43	66	183	328	247	332	314	351	492	365	1.5	-127
네 팔	2	2	21	22	32	16	33	82	159	316	1.3	157
러시아	70	155	236	297	315	234	203	152	110	139	0.6	29
기 타	658	583	443	577	564	601	669	749	741	777	3.1	36

자료 : 통계청, 2010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건수

(단위: 건, %)

2008					2009				
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기타	계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기타
2,472	1,290	673	207	302	1,987	931	523	204	329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순임

• 다문화가족 지원의 실효성 확대

-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 가족프로그램과 다문화체험을 통해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확대하면서 여성들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효과를 가져 옴.



• 친정니들이 사업의 증가와 가족 화합의 증대

- 이주여성가족들과 활동가들이 이주여성들의 출신 국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각 국가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가별 특수성에 기반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권역별로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소규모·근거리지역·지속적인 만남등의 방식을 통해 다문화가정 지역네트워크를 형성.



• 글로벌 관점의 사회공헌활동 모델 확립

- 2009년 태국 현지법인과의 프로그램 진행 및 현지 홍보등으로 글로벌한 사회공헌모델 등을 적극 홍보할 수 있었음. 2010년 삼성생명 베트남 주재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본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날(NAL)자 프로젝트 2010 진행과정 및 성과

공모 및 선정과정

다문화가정 참가자 공모 및 선정

1) 선정위원회 구성

- 역할: 다문화가정 참가자 선정

2) 참가자 선정 기준 마련

- 선정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출신 결혼 여성 이민자와 가족
- 선정 기준 확정 : 한국에 입국한 지 오래 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친정방문경험이 없는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신청대상자격

- (1)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주최 측의 일정에 따라 성실히 참여할 자
 - (2) 신청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 (3) 2008년 1월 1일 이전,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친정방문경험이 없는 자
 - 우대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 방문경험이 없으신 분을 우선순위로 선정

3) 참가자 공모 및 선정

(1) 공모진행

- 공모 홍보 : 전국의 이주여성 관련 단체 및 기관 홍보(이주여성지원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결혼이민자센터, 사회복지관 및 이주여성 한글교실, 정부 각 부서,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사무소 등), 지역 언론 및 이주여성 관련 인터넷 사이트 홍보 등 다양한 창구 이용

- 공모 결과 : 총 173가족 신청

(2) 심사과정

- 1차 적격심사 : 신청자격 충족된 신청자 선정
- 2차 최종심사 : 1차 선정자들 중에서 한국 입국 시기, 친정방문시기,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

(3) 선정 : 총 30가족(102명)



▷ 대상자 선정 확정 명단

여성이민자	한국 배우자	아동1	아동2	아동3	신청 인원
도띠후엔	김경원	김태희			3
황티홍웅	조병호	조은서			3
부티란	백상흠	백승일			3
팜티신	강진구	강상윤			3
당티투	정한중	정승화			3
도티란	정재환				2
호티투위항	장경일	장지수			3
느엔티프영웅	최영수	최수진	최수민		4
웬티투번	허성무	허보배	허진주		4
천티검레	유충현	유성우			3
투김화	한익희	한지연			3
다오티 배하이	홍의정	홍선하			3
이민경	정진규	정하영			3
팜티유에	주흥노	주현경	주혜정	주연진	5

여성이민자	한국 배우자	아동1	아동2	아동3	신청 인원
장터이로터	황용길	황정민	황민재		4
윙티웃	김성규	김진관			3
응웬 미토	박정호	박대선			3
팜티누엔	장정환	장병준	장병지		4
우옌옥안	최상진	최승빈			3
딘티싱	김대규	김가영	김나영		4
응우옌티지앙	채상원	채린	채민		4
마이티홍넌	박영호	박유미	박유성		4
앙띠 뚜란	김순식	김태근	김태양		4
부민응엣	양금석				2
부티영아	장동현	장정희	장소희		4
웬티기에우엠	이용동	이창민			3
팜티배남(이미영)	임성배	임이랑	임준현		4
호 티곤	김재필	김영주	김종민		4
팜 녹뚜	최종성	최윤미	최은철		4
레티황추옌	유재민	유승미			3

〈참가자 선정위원〉

이름	직위	소속
이경순	선정위원장	前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심영희	선정위원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현미	선정위원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언론 및 촬영팀〉

이름	역할	소속
정수현	후원처	삼성생명
최원석	촬영팀(기록)	-
조세현작가 권대홍	사진촬영	ICON STUDIO
안지선 기자 장소희 탤런트	화보촬영	여성중앙
김청환 기자	취재	한국일보
강혜두PD 태하나 조연출 김철호 카메라감독	촬영	아리랑TV

〈기획팀〉

이름	직위	소속
강현옥	팀장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심인성	팀장	
권오희	시설장	서울이주여성디딤터
방형심	수녀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
박현주	팀장	창원시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아란	활동가	
우미숙	사무국장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이화수	정책실장	부산여성회
윤난영	이주여성상담 지원부장	군산여성의전화
민은영	사무국장	
강경희	사무총장	한국여성재단
명진숙	배분팀장	
박애순	총무팀장	
김은경	배분팀 대리	
최경진	배분팀 대리	
이해리	배분팀 대리	
유경미	총무팀 대리	



날(NAL)자 프로젝트 2010 만족도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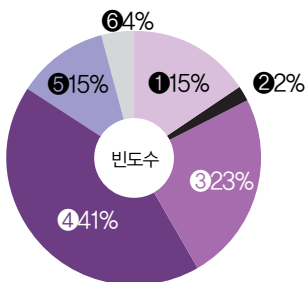
2010년 날자 프로젝트 참가자 60명(여성30명, 남성30명)을 대상으로 날자 프로젝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응답율 100%). 설문은 2010년 8월 13일 베트남 현지에서 실시되었으며, 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입수경로



날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로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물었다.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입수경로는 시민/여성단체의 소개(41%)였고, 정부기관의 소개(23%)가 뒤를 이었다. 특히, 매체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2009년도의 1.5%임에 비해, 2010년도에는 15%로 증가하여, 권역별 단체를 통해 각 지역별로 홍보를 진행하고, 지역특성에 맞도록 지역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친정방문 <날자>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복수응답포함)

- ① TV, 신문, 인터넷 등
- ② 가족, 친지의 소개로
- ③ 정부기관(읍면동사무소 등)의 소재로
- ④ 시민사회단체(여성단체)의 소개로
- ⑤ 기타
- ⑥ 무응답

진행과정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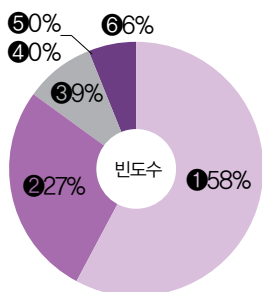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았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나,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는 예년과 비슷한 만족도를 보였고, 만



족하는 의견이 80~90%에 걸쳐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데 서류를 준비하거나 신청서, 추천서등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는 총7~9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과 동시에, 연계기관이 없는 경우 추천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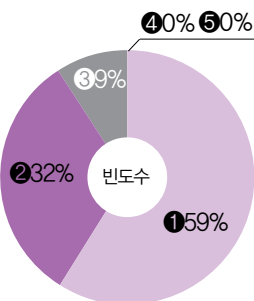
다만, 작년등과 확연하게 달라진 만족도는 안내교육과 가족프로그램에서 드러났다.

안내교육 일정과 가족프로그램 1박2일은 참석하기 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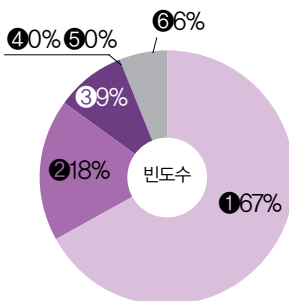
- ① 매우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
- ④ 아니다
- ⑤ 매우아니다
- ⑥ 무응답

안내교육 장소가 참석하기 편했다



- ① 매우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
- ④ 아니다
- ⑤ 매우아니다
- ⑥ 무응답

안내교육 가족프로그램의 내용이 좋았다



- ① 매우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
- ④ 아니다
- ⑤ 매우아니다
- ⑥ 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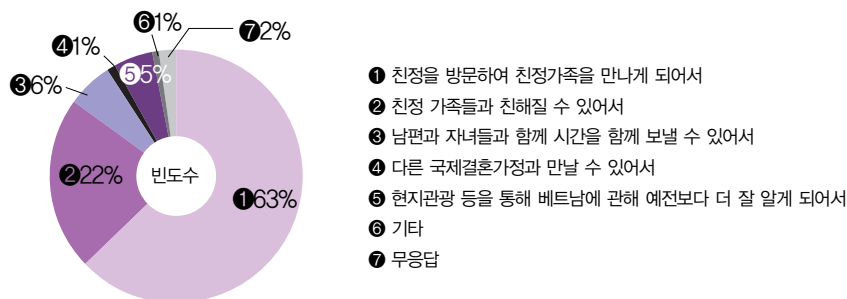
2010년도부터는 안내교육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프로그램을 결합하였다. 그리고, 1박2일로 구성함으로 다문화가정간의 교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친정방문을 하기전에 근거리 가족간에 정보를 나누고, 친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3번에 걸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지역과 가족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는, 안내교육과 가족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교하여 높아지게 된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베트남 현지에서 진행된 날자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장 좋았던 점과 더불어, 출국장에서의 안내, 친정방문, 현지관광, 가족프로그램 등에 걸쳐 각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우선, 날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았던 점으로, 친정가족들을 만나게 된 점과, 친정가족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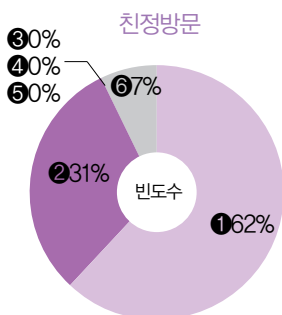
이번 친정방문 (날자)가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날자 프로젝트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복수응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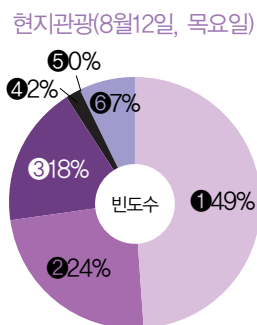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친정방문 자체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현지문화체험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보통(18%)'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진행시간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46%로 현지 문화 체험에 대한 진행이 조금더 내용적으로 기획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가족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이상이 83%에 이르며, 60%가 현재의 진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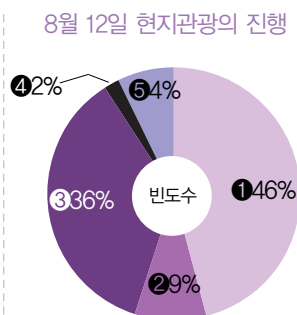
날자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만족여부



- 1 매우그렇다
- 2 그렇다
- 3 보통
- 4 아니다
- 5 매우아니다
- 6 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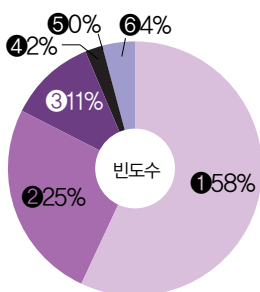


- 1 매우그렇다
- 2 그렇다
- 3 보통
- 4 아니다
- 5 매우아니다
- 6 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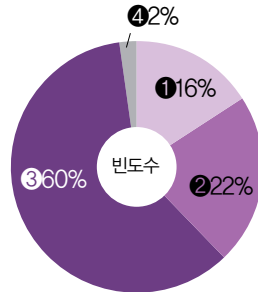
- 1 지금보다 시간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지금보다 시간이 더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지금의 진행시간이 적당하다
- 4 기타
- 5 무응답
- 6 무응답

가족프로그램의 진행 (8월13일, 금요일)



- 1 매우만족
- 2 만족
- 3 보통
- 4 불만족
- 5 매우불만족
- 6 무응답

가족프로그램의 진행시간



- 1 지금보다 시간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지금보다 시간이 더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지금의 진행시간이 적당하다
- 4 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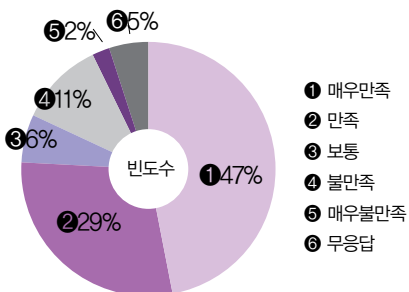
간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주어, 진행방식에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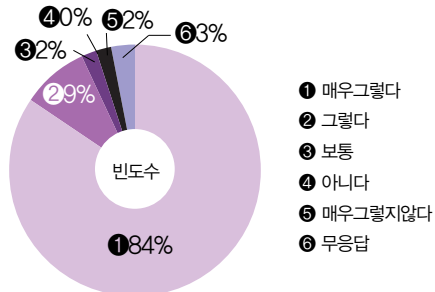
친정방문기간에 대해서는 만족이상의 의견이 76%로 대체로 만족하는 의견으로 보인다. 기타의견으로 친정이 너무 먼 경우에 이동시간이 오래

걸려 실질적으로 친정방문기간이 줄어드는 경우나, 아내만이라도 더 오래있게 하고 싶은 아쉬움 등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93%이상이 '그렇다'는 응답을 나타내었고, 주변의 다문화가정에도 알리고 싶다는 등 기타의견이 있었다.

이번 친정방문기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번 행사와 같은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참가자 마음 나누기



가족

레티황추엔 · 유재민 가족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 삼성생명에서 도와줘서 친정에 갈수 있다고 했을 때 믿어지지않았다.

나에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정말 남편과 우리딸과 함께 베트남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왔다. 내가 뽐혀서 베트남에 갈 수 있게 되고, 얼마후에 둘째를 임신 했다.

남편과 함께 딸 승미의 손을 잡고 배속에 둘째 아기와 함께 베트남에 가니 가족들이 무척 기뻐했다. 입덧 때문에 제대로 먹을 수 없고 관광하기도 힘들었을 때 청주센터 심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삼성생명과 여성재단과 여러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애기들 잘 키우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투김화 · 한익희 가족

6년만에 찾은 친정, 모두가
즐거운 큰 잔치를 했습니다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의 친정방문을 지원합니다” <날자 2010> 신청공고에 제가 추천됐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결혼 후 6년 동안 친정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마음이 조급해서 미리 친정 갈 다 준비를 해놓았다. 엄마 선물과 영양제도 샀다.

베트남에 도착하여 친정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목이 메여 말이 안 나오고 눈물만 났다. 엄마는 예전에 비해 많이 늙으셨고 너무 여위셨다. 그리고 언니와 동생도 많이 변해 있었다. 베트남 떠나올 때 어리기만 하던 동생도 많이 컸다. 처음 만났을 때 못 알아보기까지 했다. 몇 년 동안 엄마 생신을 해드리지 못해서 베트남 가기 전부터 잔치를 해 드리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케이크를 사고 옷도 사드렸다. 가족과 친척 마을 사람들과 큰 잔치를 열었더니 모두 즐거워했다. 결혼하면서 베트남을 떠나올 때 아버지 산소도 찾아뵙지 못해 그동안 많이 속상했는데 아버지 산소에 다녀올 수 있어서 마음이 가벼웠다.

며칠간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니 오기가 싫었다. 엄마와 언니가 정성껏 만들어 주신 베트남 음식도 너무 맛있었다. 하지만 일주일 간 베트남 음식만 먹었더니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진 것을 보니 나도 한국 사람이 다 되어간다는 것을 느꼈다.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로 친정을 다녀올 수 있어서 기뻐다. 다음에 더 많은 친구들이 친정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7박 8일간 동안 베트남에 갔다 올 수 있게 도와주신 한국여성재단과 삼성생명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선생님들이 베트남 갈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죄송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족과 함께 잘 다녀와서 너무 즐거웠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팜티누웬(이지현) · 장정환 가족

고향에 다녀와서 너무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팜티누웬입니다.

이번에 삼성생명과 여성재단에서 도와줘서 베트남 갔다가 왔어요. 저에게 고향을 다녀오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 와서 5년 살았어요. 매일매일 베트남에 가고 싶었어요.

삼일동안 친정집에서 식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호치민 시내구경 했어요. 통일궁에도 갔어요. 옛날 대통령 사는데를 알게 돼서 마음이 기뻐요.

중앙우체국에도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족놀이도 했어요.

많이 이야기하고 선생님들과 재미있게 놀았어요. 재미있는 숙제도 내 주었는데 좋았어요.

사이공 배를 타고 예쁜 불빛도 보고 맛있는 저녁도 먹었습니다.

제가 베트남 사람이지만, 베트남에 이런 구경 처음이에요.

베트남에 있는 친정집에 가도, 가족들을 만나고, 호치민을 가족과 함께 즐겁게 구경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행복해요. 고향에 다녀와서 너무 행복해요.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갈 힘이 생겨요. 시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도와드리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힘도 생겼어요.

제가 친정에 갈수 있도록 도와주신 삼성생명과 여성재단에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청주센터 심팀장님 같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 선생님 분들 감사합니다.





당티투 · 정한중 가족

삼년만의 외출

어느덧 결혼한지도 삼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삼년이라는 시간 속에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갓 결혼해 한국말이 서투른 베트남 새댁이 한국어 공부를 배우러 다문화 센터에 다니던 중, 첫 아이를 유산한 이후 지금의 건강한 승화가 탄생하였다. 오랜 만에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다. 이 모두 조상님과 여러분들이 축복해주는 덕택으로 이런 행복을 만끽하는가하는 생각을 해본다. 작년 이 맘때쯤 친정에 보낼려고 했는데, 아이도 어리고 먼 길을 가야하고 온 나라가 신종플루 때문에 근심 반, 걱정 반으로 고민을 하는 바람에 보내지 못하였다. 아까운 생명이 채 피기도 전에 생을 마감한 아이와 노인도 있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러던 중 다문화 센터와 여성재단, 삼성생명 후원덕분에 7박8일이라는 친정나들이를 하게 된 것을 이 지면으로나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베트남 출발 전날 밤 공항근처 숙소에서 잠을 청하는데 승화엄마는 마음이 들떠서인지 거의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하긴 삼년만이 고향길이니 몸은 비록 한국땅에 있지만 마음은 벌써 고향땅에 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하여본다.



다음날 공항에 도착하니 많은 다문화 가족들과 관계자 분들이 모여 있었다. 기념 촬영을 마치고 드디어 베트남을 가기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네 시간의 여행 끝에 호치민 공항에 서 밖을 나오니 장모님과 여동생 남동생 조카가 마중을 나왔다. 한바탕 눈물 바람을 흘렸다. 하긴 삼년만의 재회이니 오죽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본다. 공항에서 5시간정도 걸려서 드디어 아내의 고향에 도착하였다. 온 가족이 모두 나와서 열렬히 한명을 해주었다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한 순간이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차를 마시면서 공감대를 형성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다. 다음날 근처에 있는 아내와 조상님들과 장인어른에게 문안인사를 드리러 간단한 음식과 꽃과 과일을 들고 문안인사를 올렸다. 비록 장인어른을 뵙지는 못하였지만 속으로 당신 딸 내가 마음고생은 안 시킨다고 굳게 다짐을 하였다. 산책을 하다 보니 이곳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삼년 전에는 초라한 야자수있으로 엮은 집만 있었는데, 지금은 여동생은 옆에 새집을 지었고, 옆에 오빠는 현재 새집을 짓는 중이다. 그간에 형편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의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 이곳에 올 때는 처남도 새집을 다 짓고 새집에서 처남과 술 한잔 하면서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다음날 한국에서 사위가 왔다고 친척과 이웃 분들이 많이도 방문하셨다. 돼지도 잡고 닭도 잡고 음식을 준비하여서 친척과 이웃 분들과 맛있게 포식을 하였다. 나와 가족들을 뜨겁게 환대를 하여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 간에 5박6일이라는 시간은 참 빨리도 지나갔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처남집을 짓는 것을 도와주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아쉬웠다. 이윽고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 많은 친척 분들과 장모님 여동생도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석별의 정을 나누느라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나 역시도 처갓집에서 너무 융숭한 대접을 받아서 몸둘 바를 몰랐다. 마지막 날 석별의 정을 나누는데 장모님, 처남, 처제가 너무나 슬프게 우는 바람에 나 역시 마음 한구석이 뭉클하는 것을 느꼈다.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라는 생각을 해본다. 아쉽지만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또 새로운 만남이 있단 것을 마음속에 다짐을 하면서 다음에 방문할 때는 오랜 시간을 새로 정겨운 대화를 나누었으면 한다. 끝으로 이 여행이 있기까지 다문화 가족센터와 여성재단, 삼성생명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한 다문화가족들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우옌옥안 · 최상진 가족

몇 년 있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한국생활
적응할때의 아내의 마음고생이
이해가 갑니다

안녕하세요. 우옌옥안 신랑되는 최상진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공항을 나가서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처가집
식구들이 모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로 사는
결혼한 처제도 3살짜리 조카와 3시간 전부터 기다렸다고
합니다.



베트남 가서 8일 있었는데 처음이 안됐습니다. 음식도
맛지 않고 의사소통이 되질 않아 힘들었습니다. 집사람
한테 항상 고마움뿐입니다. 저 한사람 보고 한국땅에 와
서 마음고생 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적응기간동안 눈물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몇
일 있지않고 힘들었는데 그 심정 조금이나마 이해가 갑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
쁜 딸 힘들게 키우셔서 저 같은 사람한테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느낀 점은 먹고 살다보니 처가에 별 신경 안 썼는데 더욱 신경을 써야겠단
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장인어른이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크게 하셨다고 합니
다. 하루가 멀다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한명있는데 빨리 베트남
어를 가르치려 합니다. 그래야 언제 또 간다는 기약은 없어도 다음에 외가집 갔을때
조금이나마 편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국 오는 날 저희는 관광하고 있을 때 장
인어른은 집사람 얼굴 한번 더보려고 공항에서 5시간 동안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잘 살겠습니다 여성재단과 삼성생명께 고맙습니다.





팜티배남 · 임성배 가족

처가집에 드린 진짜 선물은
개구쟁이 아들과 말괄량이
귀여운 딸이죠



먼저 저희 다문화가정 친정방문에 고생하신 한국여성 재단과 후원을 하여주신 삼성생명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결혼을 하여 베트남을 방문하였지만 처가집이 멀다는 이유로 처가 친지분들을 호치민으로 초빙하여 처갓집 구경 한번 못 해보고 4년이란 결혼생활 후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과 설레이는 기분으로 호치민 공항 도착, 장모님과 처제 여러 친지분들께서 마중을 나와 인사나누다 정신이 없는 도중 장모님을 뵈서 저번보다 잘도 지내시고 얼굴도 좋아 무척 기뻐했습니다. 참고로 처음 결혼식 때 장모님 손을 만지는 순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할 정도로 마르셨거든요!

점심을 휴게소에서 먹고 장모님댁 처음 도착. 부인에게 들은 집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실은 장모님댁이 전에 비가 새서 부인과 제가 돈을 모아서 집 지으시라고 조금 드렸거든요. 다른 친지분들과 인사 나무며 선물 공개. 진짜 선물은 저의 개구쟁이 아들과 말괄량이 귀여운 딸이죠. 장모님도 손자 손녀 얼굴을 만지며 너무 좋아하셔서, 너무 좋으면서 미안한 마음이었죠. 멀리서 오랜만에 왔으며 여러 가지의 과일과 음식들을 자꾸 주시는 덕에 소화시키는데 힘들었죠. 또한 아이들에게도 잘 해주셔서 언어 소통은 잘 안 됐었지만 불편없이 저의 식구들이 잘 적응하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준환의 일기 ♥
아빠가 외할머니 집을 간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왜 하필이면 베트남 가기 좋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뜻했다.
그때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이 많았었다.
그래서 하필이면 아버지를 잃어버릴 뻔했다.
알마후 외할머니 댁에 도착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6살짜기 동생하고 놀았다.
재밌었다.





황티홍응 · 조병호 가족

해야 할 일이 많아졌네요

베트남 친정방문 후 딸아이와 그리고 와이프에게 더욱 더 잘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베트남에 계신 장인 · 장모께도 자주 연락하고 용이 편에 적더라도 물질적인 도움도 드려야 할텐데요. 우선 문제되는 베트남처가의 주거문제와 어머님건강문제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 조금 마음이 무겁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죠. 지금 모시고 계신 올 엄니. 베트남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주위에서 많은 도움주신 고마운 분들.



날자프로그램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던 여러 선생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동행했던 날자 식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길 바랍니다.





팜티신 · 강진구 가족

친정방문 후 생활의 활기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계절 가을입니다.

이번 날자2010 선정되어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온 강진구, 팜티신, 강상원 가족입니다. 먼저 주관한 한국여성단체 및 후원하신 삼성생명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고향에 계신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늘 안타까워 했습니다. 이번 친정방문을 통해 할머니가 아직 건강한 모습을 보고 좋아했으며 또한 부모님 그리고 형제 및 여러 친지들을 만나 이야기 하면서 함박꽃 웃음을 지으며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자주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친정방문 후 생활의 활기를 찾은 것 같으며 또한 지금 갖고 있는 혈소판 감소증 역시 일주일에 한번씩 수혈을 하던 것을 이주에 한번씩 수혈을 받고 있으므로, 친정방문 후 마음이 안정된 것 같아 마음이 아주 좋아 저 역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좀 더 많은 가정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저의 조그마한 바램입니다.

아무쪼록 친정방문 프로젝트 날자 2010을 주최해 주신 한국여성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두서없는 글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2010년 9월 28일 강진구 드림

NGO 기획팀



날자2010 친정방문프로젝트!!!

그동안 비싼 경비부담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지 못했던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었을까.. 이번 친정방문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나누며 자녀들에게는 어머니나라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넓은 의미로, 이번 2010날자의 주인공 다문화가정이 한국에서 더욱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꿈만 같았던 친정방문의 귀한 시간 동안, 저마다 가슴에 새겼을 소중한 추억들이 삶에 활력과 힘의 원천이 되었길 빌며 “2010 날자의 주인공 30가정이에!” 사랑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심인성(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레임 반, 걱정 반으로 시작된 이번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와 그들이 태어난 나라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몇 년만에 만나는 가족들과의 상봉과 떠나는 날 공항에서 5~6시간 기다리며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이민자들을 돕고 있는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또 한국으로 가기위해 사전교육중인 결혼이민자들을 보면서 다문화가정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으로 다문화가정에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AL자를 통해 베트남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얻었고, 다문화가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정아란(창원시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0년 날자로 떠난 베트남...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연습을 매일 매일 합니다.

2010년에 떠난 베트남으로의 여행은 제게 이해와 수용을 넘어 용화를 알려준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박현주(창원시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0년 10월 화창한 가을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고서야 실무자들의 마음을 놓이게 했던 도티란, 정재환님...

헤어지는 서운함에 신발마다하고 맨발로 호텔로 비까지 내려와 장인어른 두 손 꼭 잡으시고 애정 담은 눈길로 내내 건강하시라 배웅하시던 강진구, 상윤이, 팜티신님...

부부가 따라다니며 유난히도 입이 짧은 아들에게 밥 떠먹이시던 부티란, 송일이, 백상흥님...

덜덜덜던 지난 여름 날자 2010에 함께했던 가족들과 만들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하나, 둘 꺼내 봅니다.

2010년 여름을 생각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우리들만의 소중한 추억~ 그 추억들도 세월 속에 바래져가고 담담해 지겠지요.

우리들 삶이 그런 것처럼...

함께 했던 모든 분들께 푸름을 잃지 않는 청년의 기상으로 살아가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미숙(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NGO 기획팀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추억을 간직한 채 각자의 생활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문득 문득 떠오르는 베트남에서의 일들로 미소짓게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서로에게 건네는 잔잔한 미소가 힘을 나게 만들었고 잠깐이나마 어린 아기들을 안고 있었던 온기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듯 하네요. 친정가족들과 호텔에서 헤어지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 하지만 가족들에게 예쁘게 보이려는 눈 화장이 검은 눈물로 눈 주위를 검게 물들인 민망함!! 눈물을 참으려고 서로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먼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참아보려고 애썼지만.. 잘 안되더라고요..서로를 안아주며 어깨를 다독거려 줄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지요..

친정방문을 다녀온 후 남편 분들과의 이야기 속에는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위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끊임없는 친지들의 방문으로 계속되는 술.. 친정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내들의 환한 웃음.. 아기들의 밝은 표정으로 벽차오르는 잔향.. 가족들과의 헤어짐과 꼭 빨리 다시 오리라는 다짐~~ 하지만 빨리 한국 가서 김치에 썬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싶다는 숨길 수 없는 열망!! 남편과 아내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난 뒤 서로 상대방의 마음의 쪽지를 알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 기대, 서운함, 따뜻함, 알아가는 과정,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결심, 약속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약속하셨던 일들은 잘 실천하고 계신지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 우리의 소중한 경험, 찼~한 감동들을 많은 가족들이 나눌 수 있는 날자의 성장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몽글하고 찼한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네요..

강현옥(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친 : 친한사람들 끼리 모인 것은 아니었지만
정 : 정을 나눌 수 있었던 7박 8일! 을 보내고
나 : 나니, 이제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 들이 궁금함 되어 안부 묻고 싶어지네.
이 : 이렇게 마음 만나 어우러진 삶의 자리가
날 : 날개 달고 날아오를 만큼
자 : 자연스럽게 희망을 담게 하네.

방형심(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



뜨거운 태양의 열기보다 더 강하고, 더 깊은 그리움으로 떠났던 8월의 '날자'는 가슴에 켜켜 눌러둔 사랑과 그림움의 크기만큼이나 설렘을 가지고 진행되었고 공항에서 만나는 친정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옆에서 있는 내 마음도 그들만큼이나 기쁘고 좋았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비행기로 5시간이면 만나는 거리인데도 형편의 거리는 100시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 고향과 엄마와 동생들을 애타했을텐데...

'날자'는 항상 그렇게 나무처럼 성장하며 이들의 목마름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준다. 함께해서 힘을 얻고 더불어 행복해진다. 그래서 더 고맙고,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가족들과 추억으로 물들었던 8월의 시간들이 소중한 만큼 이제 또 그 가족들이 보고 싶다.

민은영(군산여성의전화)

NGO 기획팀



가족 상봉과 헤어짐의 눈물은 늘 그렇듯 뜨거웠고 우리들도 명치끝도 아리게 한다.

특히, 친정가족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자고 한국행을 결심한 딸들이라면, 한국 생활이 편치만은 않을 텐데 웃음을 잃지 않는 아내라면, 말도 음식도 낯선 곳에서도 처가의 넉넉한 품을 느끼고 온 사위들이라면, 상봉과 이별의 눈물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미안함의 눈물이라.

‘날자’ 프로그램은 단순한 친정방문을 넘어서서 이런 계기를 통해 아내의 나라, 엄마의 나라에 대해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은 가족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도 소통과 이해를 돕는 역할을 잘해야겠다고 다짐하곤 했는데 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한 덕에, 참가한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에 나에겐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도움주신 삼성생명

함께한 실무진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가족들께 짚~한 감사의 인사!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으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웃 가족’으로 담백한 시선을 갖게 하는 ‘날자’의 치명적(?)매력이 내년, 후내년 지구 곳곳에 퍼져 나가길 소망한다.

이화수(부산여성회)



오토바이 위에 세 여인이 보입니다.

하늘거리는 꽃무늬 원피스의 사랑스러운 딸, 너무나 보고프고 그리웠던 막내언니, 마냥 자유롭고 행복한, 그래서 웃음이 입가에 떠나지 않는 그녀, 호티...

오토바이 위의 세여인은 그렇게 마음껏 동네를 신나게 다닙니다.

그녀들의 큰 웃음소리로 8월의 베트남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윤난영(군산여성의전화)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과 설렘. 우리 모두를 설레게했습니다. 만난 기쁨에 울고 보내야하는 이별에 울고, 이것이 가족인가 봅니다. 가족이 있어 든든하고 가족이 있어 행복한 것이 우리입니다.

권오희(서울이주여성디딤터)





Migrant Women's
Homeland Visiting Project
NALJA 2010

언론에서 본 ‘날자’

일자	제목	신문	기자명
2010.4.23	베트남 이주여성 친정방문 지원	전남일보	장우석
2010.5.18	이주여성 친정방문을 지원합니다.	중부매일	이지호
2010.6.29	이주여성 지원 ‘다문화 네트워크’ 강화	문화일보	이민중, 유희경 박민철
2010.8.8	삼성생명,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	연합뉴스	안승섭
2010.8.8	이주여성가족 친정나들이	연합뉴스	
2010.8.8	삼성생명, 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지원	아시아경제	박정원
2010.8.8	삼성생명 “이주여성 친정나들이 보내드려요”	뉴스스	류영상
2010.8.9	삼성생명, ‘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지원	한국금융신문	
2010.8.9	삼성생명, 이주여성 친정방문 지원	머니투데이	배성민
2010.8.11	이주여성 지원, 반한감정해소 큰 몫 ‘톡톡’ 삼성생명 사회공헌활동 2국가와 긍정관계 형성	헤럴드경제	김양규
2010.8.18	베트남 처가에 다녀온 뒤 “남편이 달라졌어요” [따로 또 같이, 다문화 우리문화]	한국일보	김청환
2010.8.20	‘당당해진 아내들, 성숙해진 남편들’에게서 희망 본다 베트남 아내들의 친정방문이 남긴 것	기고	강경희 사무총장
2010.8.23	장서희, 베트남 이주여성 친정방문 길 동행	아시아 경제	윤태희
2010.8.23	장서희, 베트남 이주여성 친정방문 동행 “역시 선행천사!”	스포츠 조선	이다정
2010.8.23	장서희, 베트남 이주여성 친정길 동행	스포츠 칸	박은경
2010.8.24	4년만에 고향에 돌아와 그리운 엄마 품에 다문화가족 30가구, 베트남 방문	베트남 한국교민신문	최상봉
2010.8.30	장서희, 베트남 이주여성 돕기 “팔 걷어 부치다”	매일경제	장주영
2010.9.1	베트남 이주여성의 친정방문 길에 장서희와 동행하다	여성중앙	안지선
2010.8.7	재회의 눈물	호치민 여성신문	투바



전남일보 | 장우석 기자 | 2010.4.23

베트남 이주여성 친정방문 지원

여성단체가 호남지역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과 가족들의 친정방문을 지원한다.

군산여성의 전화는 22일 “국제결혼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여성재단의 후원과 삼성생명의 후원으로 국제결혼가족의 친정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여성의 국제결혼가정으로 가족 당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방문기간의 8월 7일부터 14일까지 7박8일이다.

지원내용은 선정된 가족구성원의 인천~호치민 왕복항공료 및 호치민에서의 1박2일 가족프로그램 및 현지관광(숙박, 식사 포함) 비용 등이다.

신청자격은 2008년1월1일 이전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을 우선순위로 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 소정의 서류를 다음달 24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방법은 ‘군산여성의전화’ (063-445-2285)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선정자는 6월 11일에 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 및 개별통지한다.



중부매일 | 이지호 기자 | 2010.5.18

이주여성 친정방문을 지원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삼성생명의 후원으로 국제결혼가족의 친정방문을 지원한다.

한국여성재단은 아내의 나라, 엄마의 나라에 가족들이 함께 방문해 현지 가족들을 만나고, 참가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친정방문을 지원하게 됐다.

한국여성재단은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살레시오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산여성의

전화,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이주민센터와 공동주관으로 친정방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방문기간은 오는 8월 7일부터 14일까지 7박8일일로 베트남을 방문한다. 이에 대한 접수는 오는 24일까지 우편접수하면 되고 6월 11일 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043-223-52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일보 | 이민종, 유희경, 박민철 기자 | 2010.6.29

이주여성 지원 '다문화 네트워크' 강화

이주여성 모국방문은 삼성생명, 사회봉사단이 여성가장 창업지원, 엄마의 소망캠프 등과 함께 역점을 두고 있는 3대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이주여성 모국방문 사업이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가족과 함께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램. 선정대상자는 한국에 입국한 지 3년 이상 되고 친정방문 경험이 한번도 없는 이주여성들이며 국민 기초생활 수급원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007년부터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 3개국 60가족 220여명의 친정 체류비용 전액을 지원했다. 프로그램을 주도한 한국여성재단은 이와 관련 “이주여성의 남편과 자녀들이 현지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아내와 엄마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고향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다문화 가족간 네트워크 형성, 사회봉사 단체들과의 연결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좀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된다. 2009년 10월에도 지역사회봉사단체 추천을 받아 타국 이주여성 34가족 120여명이 7박8일 일정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사회봉사단 사회공헌활동의 특징은 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라며 “이주여성 모국방문의 경우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극빈층이 주요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안승섭 기자 | 2010.8.8

삼성생명,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

삼성생명은 올해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통해 이주여성 30명과 그 가족 등 총 102명의 방문을 도왔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참가를 신청한 이주여성 173명 중 이주 후 한 번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여성 102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7일 한국을 떠나 14일까지 7박 8일 동안 친정을 방문하게 된다.

삼성생명이 2007년부터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진행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등에서 온 이주여성 93명과 그 가족 등 총 338명이 모국을 방문했다.

삼성생명 사회봉사단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이주여성에게 고향 방문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은 물론 남편과 자녀에게도 아내와 어머니의 모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여성가족 친정나들이 | 2010.8.8

삼성생명과 한국여성재단 주최 ‘이주여성 모국방문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가족(총 30 가족, 102명)들이 7일 인천공항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 박정원 기자 | 2010.8.8

삼성생명, 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지원

삼성생명은 이주여성 30 가족, 102명에 대한 친정나들이를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친정나들이는 삼성생명이 2007년부터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사업’에서 비롯됐다.

이 사업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가족과 함께 모국을 방문하도록 하기 위해 시작돼 작년까지만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등의 93가족, 338명의 친정 방문이 이뤄졌다.

올해 참가자는 공모기간인 4~5월에 참가를 신청한 173 가족 중 한국 이주 후 한번도 방문하지 못한 여성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오는 14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하노이 팀(9가족)과 호치민 팀(21가족)으로 나뉘어져 친정을 방문하게 된다.

삼성생명 사회봉사단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이주여성에게도 고향방문의 기쁨을 누리게 하지만 남편과 자녀에게도 이주여성의 환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시스 | 류영상 기자 | 2010.8.8

삼성생명 “이주여성 친정나들이 보내드려요”

“선정되는 순간 너무 기뻐 부모님께 바로 전화 드렸어요. 남편과 2살난 아들과 함께 친정을 방문하게 되다니...정말 꿈만 같습니다.”

7일 인천공항 출국장에는 있던 부티란(33세)씨는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2007년 한국에 온 뒤 한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기 때문. 부티란씨 뿐 아니라 이날 이곳에는 결혼 후 처음으로 친정나들이에 나선 이주여성 30 가족, 102명이 환한 표정으로 출국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 친정나들이는 삼성생명이 2007년부터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사업’에서 비롯됐다.

이 사업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가족과 함께 모국을 방문하도록 하기 위해 시작돼 작년까지만 해도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등의 93가족, 338명의 친정 방문이 이뤄졌다.

올해까지 포함하면 총 123 가족, 443명의 방문이 이뤄진 셈이다.

올해 참가자는 공모기간인 4~5월에 참가를 신청한 173 가족 중 한국 이주 후 한번도 방문하지 못한 여성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오는 14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하노이 팀(9가족)과 호치민 팀(21가족)으로 나뉘어져 친정을 방문하게 된다.



한국금융신문 | 한국금융신문 기자 | 2010.8.9

삼성생명, ‘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지원

“선정되는 순간 너무 기뻐 부모님께 바로 전화 드렸어요! 남편, 2살 아들과 함께 친정을 방문하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7일 오전 7시 인천공항 출국장에 있던 부티란씨(33세)는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2007년 한국에 온 뒤 한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티란씨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결혼 후 처음으로 친정나들이에 나선 이주여성 30가족(102명)이 출국을 준비했다.

이번 친정나들이는 삼성생명이 2007년부터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사업’에서 비롯됐다. 이 사업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가족과 함께 모국을 방문하도록 하기 위해 시작돼, 작년까지만 해도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등의 93가족(338명)의 친정 방문이 이뤄졌다.

올해까지 포함하면 2007년 이후 총 123가족(443명)의 방문이 이뤄진 셈이다. 올해 참가자는 지난 4~5월에 참가를 신청한 173가족 중 한국으로 이주 후 한번도 방문하지 못한 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오는 14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하노이 팀(9가족)과 호치민 팀(21가족)으로 나뉘어져 친정을 방문하게 된다.



머니투데이 | 배성민 기자 | 2010.8.9

삼성생명, 이주여성 친정방문 지원

삼성생명이 국제결혼 등을 통해 국내로 온 이주여성들에게 모국의 친정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 행사는 2007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는 30가족, 총 102명이 해외로 떠났다. 이번 친정나들이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족과 함께 모국을 방문하도록 삼성생명이 2007년부터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사업'에서 비롯됐다. 지난해까지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등 93가족, 338명이 친정을 방문했다. 올해 참가자는 지난 4,5월에 참가를 신청한 173가족 중 한국에 온 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여성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오는 14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하노이팀(9가족)과 호찌민팀(21가족)으로 나뉘어 친정을 방문한다.



헤럴드경제 | 김양규 기자 | 2010.8.11

이주여성 지원, 반한감정해소 큰 몫 '톡톡' 삼성생명 사회공헌활동 亞국가와 긍정관계 형성

삼성생명이 추진 중인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사업'이 베트남 내 반(反)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국제결혼 한 이주여성들이 가족과 함께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등에 93가족, 총 338명의 친정방문을 지원했다. 올해 역시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6박7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이주여성 30가족, 102명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줬다.

보험권에서는 이 같은 사회공헌활동이 아시아 역내의 국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베트남 여성이 정신 질환을 앓던 남편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베트남 내 반한 감정이 일기도 했지만 삼성생명의 지원사업이 위태롭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주한베트남대사관 측은 평가했다.

행사에 참가한 여성들은 처가를 방문한 남편과 외가를 방문한 자녀들이 이주여성의 부모와 친척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행사에 참가한 베트남 이주여성 부티란(33세)씨는 “대상자로 선정된 순간 너무 기뻐 부모님께 바로 전화 드렸다.”며 “남편과 2살 난 아들과 함께 방문하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사회봉사단 관계자는 “이 사업이 이주여성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아내와 어머니의 자라난 환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 김청환 기자 | 2010.8.18

베트남 처가에 다녀온 뒤 “남편이 달라졌어요” [따로 또 같이, 다문화 우리문화!]

[따로 또 같이, 다문화 우리문화] <1부> (9) 친정가족 상봉기

말 안통하지... 음식 입에 안 맞지... 타국생활 아내 외로움 간접 체험

“고생이지 뭐. 지금 가면 말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할 텐데...”

“나는 5년 동안 그랬는데. 당신은 잠시만 겪으면 되잖아.” 7일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하노이국제공항 도착을 눈앞에 둔 베트남 항공937기 기내에서 남편 김순식(44)씨와 부인 호앙 띠뚜란(28)씨는 마냥 들떠 있었다. 전남 영암군에서 농사를 짓는 노총각이었던 김씨는 결혼 중개 업소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호앙씨를 만나 혼례를 올린 뒤

한국으로 왔다. 그러곤 어느새 5년이 휑 흘렀지만 빠듯한 살림살이 때문에 여태껏 처가 방문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결국 호앙씨의 셋째 출산을 6개월여 앞두고서야 한국여성재단이 주최하고 삼성생명이 후원한 다문화 가정 친정 방문 프로그램 ‘2010날자’를 통해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그 사이 가족의 일원이 된 두 살, 세 살배기 아들과 뱃속의 아이까지 함께한 행복한 모국 방문 길이었다.

“친정에 오니 남편이 변했어요”

30여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7~14일 베트남 하노이시와 호치민시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확은 남편의 변화다. 대부분의 남편은 현지 생활을 답답해 하면서도



▲ 결혼이주 여성 호앙 띠뚜란(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씨가 남편 김순식(왼쪽에서 일곱 번째)씨와 한국여성재단 주최 다문화 가정 친정 방문 프로그램인 ‘2010날자’를 통해 5년 만에 방문한 베트남 하이퐁의 친정에서 가족 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에서는 항상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부인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방문 2일째인 8일 하이퐁(하노이시 동쪽 3시간 거리)의 처가에서 만난 김씨는 오는 길보다는 풀이 죽은 모습이었다. 음식은 입에 맞지 않고 말은 잘 통하지 않았다. 지인들은 멀리 있다. 김씨는 “아내가 이렇게 밝은 사람인 줄 처음 알았다”며 “언어가 안 돼 답답하지만 여기 있어 보니 아내가 늘 느끼는 외로움을 조금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부인이 현지 가정과 친지로부터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은 것도 수확이다. 출산 이후 혈소판감소증을 앓고 있는 팜 티신(36)씨의 하이퐁 친정을 세 살 된 아들과 방문한 강진구(53)씨도 “친척과 친구들을 만나서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가슴이 찡했다”며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변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자신과 어머니를 눈물을 흘리며 반기는 외가 식구들의 모습은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집안의 대장이었던 아버지는 어머니 나라에서는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재단의 한 활동가는 “친정 방문은 자녀들에게 한국에서는 풀이 죽어 있거나 말수가 적은 어머니가 가정과 사회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진취적 여성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577억 들이는 다문화 지원책 효과 있나

다문화 가정의 친정 방문은 이처럼 남편을 180도 바꿔 놓는다.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역지사지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다문화 지원책도 사실 이처럼 한국 사회와 결혼이주 여성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월 집계한 ‘다문화 가정 관련 지원 부처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8개 부처에서 총 577억 2,600만원의 예산을 다문화 가정 지원에 쏟아 부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한국어 교육, 다문화센터 지원 등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에 대한 동화 정책에 치우친 것이다. 복지부의 다문화가

정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사업만 해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만 관심을 둘 뿐 자녀들의 이중언어교육(Bilingual Education)에는 별 관심이 없다. 고용부의 외국인고용관리사업 등 여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도 결혼이주 여성이나 이주노동자를 한국 산업의 노동력으로 빨리 흡수하려는 내용이다.

“동화 정책에서 상호 적응을 가야”

다수의 결혼이주 여성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된 가정불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많은 다문화 가정의 남편들은 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저소득층의 남편들의 물이해와 차별은 도를 넘는다. 더구나 저소득층 남편들은 처가를 방문해 부인이 한국에서 겪는 처지를 대리 체험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 남편이 이 정도니 한국 사회는 더 말할 것 없다.

따라서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한국 사회에 동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남편과 한국 사회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심영희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의 다문화 지원책이 대부분 결혼이주 여성을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응시키려는 동화 정책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심화하고 있다”며 “다문화 사회는 일방 적응보다는 상호이해와 적응의 과정을 거쳐 공존의 단계로 나아가야 안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이어 “부인이나 어머니의 문화를 음식과 언어에서부터 이해하는 것은 처가나 외가와와 관계를 개선시키고, 결국 부부 간, 모자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기고 | 강경희 사무총장 | 2010.8.20

‘당당해진 아내들, 성숙해진 남편들’ 에게서 희망 본다 베트남 아내들의 친정방문이 남긴 것

“아내가 환하게 웃는 모습 처음 봐” 남편의 말엔 진한 미안함이
리더십 발휘하는 엄마의 새로운 모습에 아이들도 자부심 느낀 듯

“갑자기 방문한 친척들이 막 웃는 거예요. 순간 내 흉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아! 내 아내도 이런 시간들을 수도 없이 겪었겠구나’ 생각했죠. 이제 돌아가면 좀 더 아내에게 친절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이 주최하고 삼성생명의 후원으로 지난 7~14일 진행된 베트남 아내의 친정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한국인 남편의 고백이



▲ 친정 방문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행복을 충전하고 돌아온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들과 아이들에게서 건강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다. 여성재단은 2007년부터 삼성생명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 후 친정 방문을 하지 못한 결혼이주 여성 가족들의 친정 방문 프로그램 ‘NALJA’ (Now the Answer is Love)를 진행해왔다. 2007년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2008년에는 필리핀 · 베트남 · 몽골, 2009년에는 태국, 올해에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주 여성들의 가족과 함께 그리웠던 고향 땅을 방문했다. 올해 방문 가족은 호치민 21가족, 하노이 9가족으로, 평균 고향을 떠난 지 4년 이상 된 30가족 102명이 함께 다녀왔다.

가족들의 고향 방문에는 언제나 다양한 사연이 있다. 임금이 몇 달째 밀려 여행경비와 차가에 가져갈 선물비가 없어 떠나기 이를 전까지 출국을 망설이던 가족,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어렵게 모아온 돈을 모두 소진해 빈손으로 고향 가족을 방문하게 돼 ‘가네, 안가네’를 반복하다 제일 늦게 도착한 가족, 남편의 장애로 장기간 여행이 걱정돼 현장 활동가

들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남편의 친구를 도우미로 동행하도록 해 여행이 가능해진 부부 등 올해에도 함께 떠나는 가족들은 저마다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해마다 방문국과 참가자들은 다르지만 가난의 지겨운 그림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맞닥뜨려지는 힘든 상황들이 있고, 소통의 어려움은 늘 존재하며 부부 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어 서로의 속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채 짐작과 오해가 반복되는 힘든 상황들이 되풀이되곤 한다.

하노이 공항에 도착해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와 있었을 고향 가족들을 힐끔힐끔 바라다보며 수하물 창구에서 오래도록 나오지 않는 짐을 안타깝게 기다리거나, 1시간 넘도록 기다리다 지쳐 남편을 남겨두고 먼저 가족을 만나러 나가는 여성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그들과 친지들의 상봉 장면, 이 모든 장면이 이제는 낯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삼스럽고, 여전히 가슴 먹먹한 감동을 일으킨다.

바리바리 싸운 선물보따리는 포장부터 왜 그리도 궁색해 보이는지...하지만 그 누런 포장 테이프를 겹으로 붙인 박스들 안에는 그들의 처절한 정성과 최선의 애정이 얼마나 가득 담겨있을까. 그렇게 그들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들과 상봉했다. 가슴에 고스란히 담겨있었을 그리움의 한풀이를 하기에 5박6일은 너무도 짧기만 했다. 더구나 떠난 친정 또한 가난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그 한풀이마저도 속 시원히 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가슴앓이를 했을 것이다.

NALJA의 대미는 5박6일의 친정 방문을 마치고 시내 호텔로 집결해 1박2일간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된다. 한 가족, 두 가족 호텔로 돌아오는 시간은 지켜보기에 가슴 저미는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헤어짐이 아쉬워 시내 호텔까지 배웅 나온 친정 부모님, 형제들, 조카들... 그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베트남 아내들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았다.

남편들끼리, 아내들끼리 따로 모여 처가와 친정을 다녀온 소회를 나누는 시간에는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공통된 혹은 다양한 어려움도 함께 나누게 된다. 여전히 가부장적인 관습에 많이 젖어있는 우리 남편들은 5박6일의 처가 방문 동안 아내의 도움 없이는 소통도 불가능하고, 한



▲ '2010 결혼이주 여성 가족 친정 나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 가족들.

걸음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과 독특한 향이 강해 적응하기 어려운 음식 등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베트남 아내들이 결혼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면서 겪었을 고충을 짧게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의 시간이 됐다.

실제로 호텔에 다시 모였을 때, 아내들의 모습은 상당히 당당해져 있었고, 남편들은 살짝 기가 죽어있는 모습이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말과 환경이 낯선 곳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것인지를 경험한 남편들이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늘 큰소리치던 아빠가 엄마의 눈치를 보며 그 뒤를 따라다니는 모습, 한국말이 서툴러 늘 기죽어 지내던 엄마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지켜본 아이들 또한 엄마가 참 위대해 보이는 순간을 경험했다. “내 아내가 그렇게 활달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던 남편의 말에는 미안함이 진하게 묻어 있었다. 부부 프로그램 끝에 한 남편은 “선생님! 제 아내가 아내끼리 프로그램에서 저에 대한 불만을 무엇이라 했는지 알아봐주세요”라고 부탁했다. 왜냐고 묻는 질문에 그 남편은 “고치려고 합니다. 가끔씩 제 아내가 슬퍼 보일 때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혹시 저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고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남편의 수줍은 부탁이 우리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을 풀어줄 열쇠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문화 가정’의 문제는 그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임을 NALJA를 통해 더욱 진하게 느끼게 된다. 우리의 미래 세대를 낳아 기르며 두 개의 다른 문화가 어울려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안에는 참 많은 어려움과 사연들이 스며 있다. 우리가 심할 정도로 우리의 것만을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강요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할 때다. 고집불통으로 변하지 않는 우리가 늘 그들에게 변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을 성찰하게 된다. 우리가 변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다문화 가정’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돌아오는 길, 인천공항에 내리자 다시금 남편들의 음성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한다. 7박8일간 함께 나누었던 소중한 기억들이 다시금 그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가 돼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해본다.



아시아 경제 | 윤태희 기자 | 2010.8.23

장서희, 베트남 이주여성 친정방문 길 동행

배우 장서희가 베트남 이주 여성들을 위해 나섰다. 장서희는 최근 올해로 4년째 삼성생명 후원으로 진행 중인 한국여성재단의 '날자'에 동참했다. '날자'는 결혼 이주 여성들 가운데 오랫동안 친정을 찾지 못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친정집 방문은 엄두도 못 내는 가정 가운데 30가구를 선정해 친정집에 보내주는 프로젝트다.

장서희는 새 영화 촬영을 코앞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취지를 듣고는 기꺼이 시간을 냈으며 사진작가 조세현도 이번 방문에 함께 했다.



조세현

특히 이번 방문길에 동행한 딘티싱·김대규씨 가족과 부티영아·장동현씨 가족은 장서희가 출연한 드라마 '아내의 유혹'의 팬이어서 이번 동행길이 특별했다는 전언이다.

장서희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게 됐다. 국제결혼 부부의 2세의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고 성장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없애는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장서희의 베트남 동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사진가 조세현이 촬영한 현장 사진은 23일 발간되는 여성중앙 9월호에서 만날 수 있다.



스포츠 조선 | 이다정 기자 | 2010.8.23

장서희, 베트남 이주여성 친정방문 동행 “역시 선행천사!”

장서희가 베트남 이주 여성들의 친정 방문에 동행해 진정성 어린 선행을 했다. 장서희는 한국여성재단과 여성중앙의 ‘날자 프로젝트’를 통해 이주 여성들과 함께 베트남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장서희에게 제안을 한 여성중앙 측은 “행복하지만 서글픈 동행에 진정성을 갖고 참여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배우가 장서희라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밝혔으며, 장서희는 “불교 신자라 그런지 연예인들은 ‘몸으로 보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기든 사랑이든 받은 만큼 베푸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선뜻 수락했다. 사진 촬영은 사진작가 조세현이 참여해 과정을 사실적으로 담았다.

장서희가 처음 방문한 딘티싱의 한국 집에서는 주인공 딘티싱이 “SBS ‘아내의 유혹’ 구은재가 진짜 오는거냐”고 물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장서희는 4년 만에 방문한 딘티싱의 친정집을 함께 방문하며 짧은 행복을 눈으로 보았다. 두 번째 방문한 ‘소희 엄마’ 부티영이는 “‘아내의 유혹’ 민소희를 따라 딸 이름을 소희로 지었다”며 장서희를 내내 끌어안았다.

장서희는 “이번 경험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게 됐다”며 “우리나라에 국제 결혼 부부의 2세가 10만명이라는데, 아이들 모두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으며 성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장서희와 베트남 이주 여성들의 친정 방문 사진은 여성중앙 9월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스포츠 칸 | 박은경 기자 | 2010.8.23

이주여성 지원 '다문화 네트워크' 강화



▲ '인어아가씨'에 이어 '아내의 유혹'으로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장서희의 출연으로 친정집들이 떠들썩했다는 후문이다.

배우 장서희가 베트남 이주여성의 친정방문에 동행했다.

23일 소속사 케이엔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장서희는 지난 8월초 4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에 다녀왔다. 이번 베트남 방문은 한국여성재단에서 4년째 실시하고 있는 '날자' 프로젝트를 돕기 위한 것.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친정을 찾지 못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친정길을 돕는 행사다. 장서희는 행사의 취지에 동감해 무보수로 동참했다.



'결혼 5년차 베트남 주부 단타싱 씨의 집에서는 "진짜 구은재(드라마 '아내의 유혹'에서의 이름)가 오는 거냐"고 스태프들에게 몇 번씩 확인하면서 좋아했다. 또 다른 주부 부티영아 씨는 아예 드라마 속 주인공 이름을 따서 딸의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장서희는 영화 '사물의 비밀'을 차기작으로 확정하고, 내달부터 촬영에 돌입한다.



베트남 한국교민신문 | 최상봉 기자 | 2010.8.24

4년만에 고향에 돌아와 그리운 엄마 품에 다문화가족 30가구, 베트남 방문

지난 8월 7일부터 일주일 간 한베 다문화가족들의 베트남 방문이라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 4년 전부터 진행되었던 이 행사는 한국여성재단에서 주최하고 삼성생명이 후원하는 약칭 '날자(NalJa)'라는 프로젝트다. 총 102명으로 구성된 30가족들의 이번 베트남 나들이는, 4박 5일간의 친정방문과 이틀간의 시내관광, 가족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의 의미는 해외이주여성의 결혼 후 첫 고향방문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신랑에게는 처갓집을 방문함으로써 베트남의 문화를 통해 아내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는 특별한까지 얻게 되었다.

행사 마지막 날 박석환 대사와 김호일 삼성생명 지사장도 가족프로그램의 심사위원 및 시상자로 참가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행사 참석자 중 정재환씨는 “좋은 행사를 마련해 준 한국여성재단과 삼성생명에 감사하며 처가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하였고, 베트남 신부 부티응아씨는 “4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가족들을 만나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하였다.



매일경제 | 장주영 기자 | 2010.8.30

장서희, 베트남 이주여성 돕기 “팔 걷어 부치다”

장서희는 최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살면서 어려운 형편에 친정에 가지 못하던 이주 여성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베트남 현지를 직접 방문했다. 이번 기획은 한국 여성재단과 삼성생명이 4년째 해오고 있는 이주 여성 가족을 친정집에 보내주는 ‘날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돼, 장서희는 두 집을 찾아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눴다.

불교 신자인 장서희는 “연예인들은 ‘몸으로 보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투적이지만 인기든 사랑이든 받은 만큼 베푸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은 결국 우리의 문제인 것 같다”며 “우리나라에 국제결혼 부부의 2세가 10만명이라는 데 그 아이들 모두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고 성장해가도록 해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없애는 것”이라고 전했다.

장서희가 만난 베트남 가족들은 공교롭게도 그녀가 출연한 드라마 ‘아내의 유혹’의 열혈 팬이었다. “진짜 구은재 오냐”고 물으며 실제 그녀가 나타나자 팬클럽 소녀팬처럼 환호하는 것은 물론, 한 가족은 아예 자신의 둘째 딸 이름을 극중 장서희의 이름인 ‘소희’로 지어 자신을 ‘소희엄마’라고 소개하기도 했을 정도.

한편, 이번 장서희의 베트남 방문은 사진작가 조세현이 함께 해 그녀의 모습을 다양하게 촬영했다. 그녀의 베트남 방문기와 조세현 작가의 사진은 여성중앙 9월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베트남 이주여성의 친정방문 길에 장서희와 동행하다

누군가에겐 아주 쉬운 일이 또 누군가에겐 꿈에도 그리는 소망일 수 있습니다. 첫째를 낳고도 둘째를 낳고도 가보지 못한 친정집.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살면서 팍팍한 형편에 친정집 나들이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이주 여성들이 꿈길에도 그림던 친정집에 갔습니다.



아침 7시, 하노이 호텔 문밖을 나서니 벌써 후끈한 기운이 올라온다. 더위를 피해 정문 앞에 대기 중인 35인승 버스에 서둘러 올라섰다. 어제 베트남까지 오는 비행기 안에서 몸살 기운에 힘들어하던 장서희는 새벽에 일찌감치 ‘귀 밑에’ 붙이는 멀미약을 붙였다. 오늘은 다행히 썩썩해 보인다. 중간 좌석에 자리를 잡은 장서희에 이어 사진가 조세현, 한국여성재단, 여성중앙 스태프들이 차에 올랐다. 하노이를 출발한 버스는 하이퐁이라는 소도시를 향하고 있었다. 담당 가이드는 첫 번째 방문할 집에 도착하기까지 3시간을 예상하지만 3시간은 6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도로 상황이나 여타의 변수가 많다는 얘기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신작로 같은 고속도로엔 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이주 여성들이 가족들과 함께 베트남 친정집을 방문하는 ‘날자’ 프로젝트에 여성중앙이 동참하기로 한 게 한 달 전쯤의 일이다. 한국여성재단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들 가운데 오랫동안 친정을 찾지 못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친정집 방문은 엄두도 못 내는 가정 가운데 30가족을 선정해 베트남 친정집에 보내주는 프로젝트를 올해로 4년째, 삼성생명의 후원으로 진행 중이다. 9월호의 커버 스토리로 ‘날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여성중앙에서는 동행할 배우로 장서희를 떠올렸다. 행복한 만남이지만 어쩌면 서글플 수도 있을 ‘동행’에 담백하게, 진정성을 갖고 참여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배우 중 하나였다. 새로운 영화 촬영을 코앞에 두고 있던 그녀는 행사의 취지를 듣고는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화려하게 치장한 화보 촬영보다 의미 있

다면서 코디네이터나 헤어스타일리스트의 동행 없이 베트남행을 결정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마스크 보도를 접하면서도 늘 예사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SBS희망TV와 네팔에 다녀왔는데 그때 한국으로 시집오는 어린 네팔 여성들의 얘기를 들으니 인권이나 2세 문제 등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불교 신자인 장서희는 연예인들은 ‘몸으로 보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상투적이지만, 인기든 사랑이든 받은 만큼 베푸는 게 ‘당연’ 하다고 했다. 다만 그 가족들을 만나 ‘무얼 할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막막함을 갖고 있었다.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부터 방문해야 할 가족의 스토리를 자세히 알고 싶다는 뜻을 매니저를 통해 전해 왔던 그녀다. 이 가족들을 만나 무얼 할까... 장서희에게 기자는 동행해 주는 것, 한국의 배우가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수년 만에 고향집을 찾은 이주 여성들에게 지지가 되어줄 거라고 얘기해 주었다.

큰길에서 벗어나 비포장도로에 들어섰다. 동네가 가까워졌으니 이제부터는 물어 물어 집을 찾아가야 한다(한국으로 시집간 ‘동네 아가씨’의 고향 방문 소식은 10리쯤 밖에 사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일행의 버스 앞으로 다가온다. 첫 방문 집인 딘티싱·김대규씨 부부의 큰딸인 네 살 가영이가 외삼촌(딘티싱의 오빠)의 오토바이를 타고 일행을 마중 나왔다. 까만 얼굴의 베트남 외삼촌도, 눈웃음치는 가영이도 그림처럼 정겹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와 본 외갓집에서 가영이는 신이 났다. 이를 전에 처음 만난 외삼촌과 벌써 쿵짝이 맞아 삼촌이 장난을 걸면 까르르 넘어간다. 말은 안 통하지만 사촌들과도 곧잘 어울린다. 분위기 메이커 가영이가 있어 더욱, 가족은 축제 분위기다.

더구나 한국에서 즐겨 봤던 국민 드라마 ‘아내의 유혹’의 구은재가 온다는 소식이 딘티싱을 들뜨게 했다. 멀찌감치 버스를 세워두고 논 옆으로 난 길을 걸어 집에 도착했다. 스태프들에게 “진짜 구은재 와요? 진짜요?” 묻던 딘티싱은 대문 안으로 ‘진짜’ 장서희



가 들어오자 팬클럽 소녀처럼 꺽! 환호한다.

그녀는 2006년 김대규씨와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가영이, 나영이 두 딸을 낳고 살면서 빠듯한 살림에 베트남의 친정집은 그야말로 꿈결에서나 가볼 수밖에 없었다. 4년 만에 만난 가족의 모습은 말할 것 없이 행복했지만 다시 긴 이별을 앞에 둔 짧은 행복이었다. 곁에서 보니 마음이 짝하다.

한국으로 시집가 있던 사이 오빠 역시 결혼을 해 올케 언니와 조카들도 생겼다. 타지에 있으니 엄마 없이 혼자 계신 아버지의 건강도 걱정이고, 95세로 건강이 온전치 않은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났다. 한국에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을 물으니 첫아이를 낳았을 때란다. 시어머니가 안 계셔 남편 말고는 의지할 사람도 없었으니 서럽고 힘겹게 출산을 하고 산후바라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돌아가신 친정엄마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하면서는 벌써 눈가가 축축이 젖어든다. 둘째 언니도 보고 싶고, 베트남 음식도 생각나고..., 감상적인 설움만큼이나 힘든 건 팍팍한 현실이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답답해진다. 부부가 가장 걱정하는 건 학교에서의 왕따 문제다. 두 사람은 아직 네 살밖에 안 된 가영이를 보면서 심각하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많아서다.

이주 여성의 아이들을 엄연한 '한국 아이'로 받아들이기에 우리의 시민 의식이 성숙하지 않은게 사실이다. 아이들이 자신이 바운 상처로 인해 엄마를 원망할까 봐, 엄마를 외면할까 봐 그게 벌써 걱정이라는 딴티싱은 서툰 한국말로 어렵게 얘기를 꺼냈다. 가영이, 나영이는 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사춘기를 보낼 때는 주변의 시선이 조금 더 나아지기만을 바라는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라고.

딴티싱을 아내로 맞고 김대규씨는 "행복을 찾았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외갓집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뿌듯해 한다. 그런 마음의 남편이니 곁에서 봐도 아내와 아이들을 살뜰히 챙겨 주는게 보인다. 타지에서 온 아내에게 그리 친절하지만은 않은 게 한국 남자들이라는데, 그에 비하면 이 가족은 아주 좋은 케이스였다.

"아내가 시집와서는 한 석달을 친정 가족들이 보고 싶다며 울더라고요. 말은 안 통해도 참 안쓰러웠죠. 요즘도 잘 지내다가도 저녁에 하늘을 보고 있을 때면 제가 마음이 좀 그래도. 친정 오니까 아내가 확실히 생기 있고 편안해 보여요. 저도 왕 대접 받으니까 처가가



좋은 종네요. 여기 와 보니 말 통하는 사람이 아내뿐이라 답답한데, 제가 이렇게 답답한 걸 느끼니까 아내가 한국에서 살 때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역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요.”

붙임성이 좋은 딘티싱은 어느새 장서희의 손을 잡고 침실로 간다. 낮잠이 든 둘째 나영이 곁에서 여자끼리 두런두런 대

화를 나눈다. 남편이 잘해 주는지, 한국에서 힘든 건 뭔지 찬찬히 묻는 장서희는 친언니처럼 살갑다. 딘티싱 가족을 떠나 하노이로 돌아와서도 장서희는 가영이네가 행복해 보여서 좋다는 말을 했다. 남편이 잘해 주니 딘티싱이 한국 남자들에 대한 인식도 좋다고, 엄마와 아이의 표정이 밝아서 다행이라고.

두 번째 집에 방문하기 전 일행은 한 가지 소식을 전해 들었다.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부티영아가 둘째 아이의 이름을 ‘아내의 유혹’의 여주인공 ‘민소희’를 따라 ‘소희’로 지었다는 것. 재밌는 인연이다. 앓던 얼굴의 ‘소희 엄마’ 부티영아는 웃음도 눈물도 많다. 장서희를 보고는 반가워 끌어안고 내내 함박웃음이더니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자 그렁그렁 울음이 가득하다. 아예 휴지상자를 곁에 두고 눈물을 훔치는 딸을 친정아버지가 물끄러미 쳐다본다. 스물일곱의 두 아이 엄마에게 편견 많은 타지에서의 생활은 이래저래 녹록지 않은 듯했다. 남편 장동현씨는 엉거주춤 곁에 앉더니 “내가 너무 못해 졌다”며 미안해 한다.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못해 준 게 너무 많다고. “여기 와서 보니 베트남 문화가 우리랑 많이 다르네요. 장인어른도 청소랑 음식도 다 하고... 한국 남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무뚝뚝해 보이는 남편에게 분위기 전환용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젊고 예쁜 아내 자랑 좀 해보라고. “우리 아내요? 눈썹미가 정말 좋아요. 음식도 잘하고 김치도 잘 담그고.”

이주 여성의 가족들을 만나며 기자는 한국인이기 이전에 여자가 된다. 한국 생활에 대한 얘기는 시종일관 눈물로 답하던 아직도 앓던 두 아이의 엄마가, 한국의 요즘 주부들도 담그지 못하는 ‘김치’를 잘 담근다는 말도 편치 않게 들린다.

동행했던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강경희씨는 4년 동안 베트남을 비롯해서 필리핀, 몽골,

태국의 여성들까지 수많은 이주 여성들의 친정집을 방문했다. 해마다 반복하는 일이지만 만나고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건 어쩔 수 없단다. 친정방문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마다 사연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서 방문 가족을 선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했고 또 가족 누군가는 아팠다. 친정아버지가 아프다며 며칠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느냐고 옷을 부여잡는 참여자들에게 눈물을 머금고 “No”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행사를 진두지휘하는 그녀의

역할이다. 첫해엔 이 여성들이 친정집에 눌러앉겠다고, 안 돌아가겠다고 하면 어쩌나 그게 제일 두려웠단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다.

강경희씨는 이주 여성들이 ‘프런티어 같은 사람들’ 이라고 표현했다. 베트남의 친정 식구들, 그리고 한국에서 일군 새로운 가족을 모두 돕고 또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짊어진 사람들이고, 안 돌아올까 봐 선불리 걱정하던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그녀들은 현실에 씩씩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힘들 줄 알고도 한국에 시집을 온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서독으로 파견되었던 간호사들을 떠올려보세요. 우리의 10만원이 여기서는 100만원처럼 쓰이니깐요.” 휴대폰 부품을 만들고, 옷감의 실밥을 뜯으며 수입의 일부나마 친정에 보낼 수 있어서, 그녀들은 고단한 현실을 잇는다. 실제로 일행이 방문한 두 가정 모두, 결혼 이후 친정집이 신축 가옥을 짓게 된 케이스 였다.

하찮은 우월의식으로 저도 모르게 이방인 취급을 했을지도 모를 이주 여성들은 어쩌면



우리들의 그늘진 역사였다. '동생들 공부시키고, 풀죽이라도 더 먹이려고' 고국 땅을 떠났었다던 1960, 70년대 서독 파견 간호사들과 다르지 않은.

동행기 그 이후...

'다문화 사회', 여성중앙이 함께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문제' 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2010년 현재 외국인 주민은 주민등록 인구의 2.2%, 국제결혼 부부의 2세가 1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네들의 삶이 고달프다면 우리의 가혹한 차별 때문일 수도 있고, 이웃의 냉대로 힘겹다면 우리에게 편견이 있어서겠지요. 그들이 낳은 2세대 역시 차별과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여성중앙에서는 우리 사회가 긍정적인 다문화 국가로 자리잡기 위한 고민들을 나누겠습니다.

이주여성들이 겪는 '불편'의 소리를 전하고, 아이를 키우는 이주 여성에게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중앙 독자들이 '재능 기부'가 이어질 수도 있겠지요.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름'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지지해 준다면, 우리 안에 그런 정서가 자리를 잡아갈 즈음이면 그들의 2세대들은 더 이상 엄마의 나라를, 엄마의 존재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호치민 여성신문 | 투바 기자 | 2010.8.7

재회의 눈물

2010년 8월 7일 오후, 한국에서 호치민에 가는 비행기 VN379의 승객의 파란색 NALJA 티셔츠 입고 탑승한 가족들의 장면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명은 친정가족과의 만남으로 계속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Be Nam(안장-지역 명)에서 살다가 2006년에 한국 남성 임성배씨와 결혼했으며, 오늘은 결혼후 처음으로 남편, 아이들과 함께 고향에 처음 방문하는 날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Do Thanh Tam (Ho Thi Con 씨의 친정어머니)께서 기쁨의 눈물을 삼키며 한국사위와 외손녀를 맞아주었는데 아기가 낯선 외할머니의 얼굴 때문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Do Thanh Tam(Ho Thi Con 씨의 어머님) : “우리 딸이 한국에 시집 간지 4년이 되었으며 매월 통화했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딸이 어떻게 낯선 환경과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지 항상 염려 됩니다. 우리 친할머니(Ho Thi Con 씨의 할머니(80세))께서 심장병으로 편찮으신데 손녀 딸은 돈이 없어서 베트남에 올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 달 전에 딸이 베트남에 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정말 기쁩니다. NALJA 프로그램 덕분에 할머니와 손녀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명의 베트남신부는 NALJA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의 삼성생명 기업 후원으로 베트남 친정 방문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9명은 북부(낭빈, 하이즈어, 하이퐁 - 지역명), 21명은 남부(떠이닝, 동나이, 꼰터, 박리에우, 까마우, 허우장, 끼엔장). 날자를 통해 참가한 30가족(총101명)은 일주일 동안 (8/7~8/14)남편과 자녀와 함께 외갓집에 방문하며, 이번이 첫 친정 방문입니다.

NALJA(Now the answer is love) 프로그램은 한국여성재단 (KFW: The Korea Foundation for Women)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비영리 여성



단체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한국최초의 여성을 위한 민간공익재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지난 2007년부터 한국의 삼성생명 기업에서 후원하여, 결혼 후 모국방문을 못한 이주여성 과 가족들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순한 방문지원이 아니라, 가족(남편과 자녀 포함)을 지원 하고, 방문 전·후로 다문화가족의 교류와 가족 내 이해를 넓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 습니다. 2007년부터 진행된 NALJA 프로그램은 베트남, 몽골, 필리핀, 태국 지원했고 올 해는 베트남을 지원합니다.



아리랑TV

- 제작 : Korea's Global TV arirang
- 프로그램명 : HAND IN HAND
- 방영일자 : 2010년 8월 30일 ~ 31일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고 삼성생명이 후원하는 “날(NAL)자 프로젝트”

2007년 삼성생명 지원으로 시작된 “날(NAL)자 프로젝트”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였다.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이 함께 친정을 방문해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된 본 사업은 2010년에는 베트남을 방문, 결혼이주 여성의 다문화가정 30가족(총102명)과 함께 지난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아주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다.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의 재단소식 -
재단영상 게시판을 통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 여 단 체 소 개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설립목적

이주여성 자립과 자활을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지원

이주여성 지원사업

- 이주여성 자립자활 프로그램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 이주여성 자녀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보육지원 등

연락처

전화 02-891-2070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목적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 및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지속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제공
- 다문화사회에서 건강한 개인·관계 및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 상호교류 및 인식개선을 통하여 다문화공동체 사회조성을 위한 지역밀착형 네트워크 형성 기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이주여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한국어교육 및 교육지원), 방문교육(부모의 자녀양육능력배양), 정보화교육(컴퓨터교육), 종사역량강화(이주여성활동가교육), 취창업 지원직업교육(직업의식 확립을 위한 직업교육)

연락처

전화 043-223-5253 / 팩스 043-223-5251 / 이메일 eyeincb@hanmail.net

홈페이지 eyeincb.kr /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97번지

참 여 단 체 소 개

창원시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여성 지원사업

농촌이주여성들의 한국정착사업(한국어교실, 한국사회적응교육, 다문화한마음축제), 결혼이민자한국어교실, 결혼이민자모국동화 연극제 등

연락처

전화 055-245-8746 / 팩스 055-245-8747 / 이메일 masnywca@hitel.net
홈페이지 www.masanywca.or.kr /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3가 4-190

군산여성의전화

설립목적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나아가 가정·직장·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이주여성 지원사업

가정폭력/외도/시집 및 부부갈등/성폭력/성희롱/법률문제 등 (방문)상담, 한국어교실, 원활한 부부관계를 위한 교육, 자존감향상프로그램, 한국 전통문화/생활 체험프로그램, 이주여성 가족캠프, 결혼이민자가정-한국가정 결연지원

연락처

전화 063-445-2286, 445-2285 / 팩스 063)445-2286
이메일 kswhl21@hanmail.net / 홈페이지 www.womantel.org
주소 전북 군산시 18-14 (구)월명동사무소 2층

참 여 단 체 소 개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설립목적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는 외국인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을 통한 생명존중,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교육과 문화활동, 한국여성과 이주여성들이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과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실현하고 함.

이주여성 지원사업

이주여성상담 역량교육 및 창업연계를 위한 지원사업, 이주여성건강교육 및 건강관리교육, 기관실무자 활동가공유 및 이주여성활동가교육, 한국어교실, 나라별리더역량교육 등

연락처

전화 051-864-2603 / 팩스 051-866-2603 / 이메일 salang12@empal.com

홈페이지 cafe.daum.net/pwmigrant

주소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441-1(쥬)다이테크 별관 3층



